2020년 기업 500개 유치…글로벌 에너지도시 꿈 영근다

나주 빛가람에너지밸리

한전 주축 11개사 새 둥지
'미래 먹거리' ICT융합센터 건립

수도권 이전기업 인센티브 등
광주시·전남도 지원 노력 절실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찍은 빛가람 혁신도시 전경. 지역민은 광주·전남 미래의 핵심축이 될 빛가람 혁신도시에 에너지 밸리가 조성되면 관련 산업의 진흥과 인재 채용, 지역 발전 등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 상생의 발판이자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이 본 궤도에 올랐다. 조성사업 주체인 한국전력의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지역민은 '장미빛 기대'를 품게 됐다. 빛가람 에너지 밸리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포도밭만 있는 보잘것 없는 농경지에서 구글, 애플 등이 본사를 둔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산업 중심지로 변모했듯, 배밭인 나주를 세계 최고 에너지밸리로 만들겠다는 한전의 비전이다. 올해만 3000억 원대의 투자를 하고 2020년까지 첨단기업 500개를 유치해 에너지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주 일원이 국내 에너지 선도도시로 발돋움 할 경우, 자연스레 우리 지역은 막강한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얻는 셈이다.

한전은 지난해 본사 이전 전부터 에너지 밸리 조성을 언급한 뒤 이전 후 사업 시행에 곧바로 착수했다. 나주에 둥지를 튼 지 불과 4개월 만에 에너지 밸리 입주기업 11개사를 유치했고, 에너지 밸리 센터 건립도 발판을 마련했다.

한전이 조성 사업에 전방위로 다가가면서 '에너지 밸리'의 구축이 멀지 않았다는 게 광주시·전남도의 입장이다.

◇**2020년까지 기업 500개 유치 목표**=한전은 지난달 30일 전력·에너지 신산업·전력ICT 분야 10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네오피스 등 10개 기업은 빛가람 혁신도시와 나주 혁신산업단지 등에 본사나 지사를 설립하고, 총 32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만 322명에 달할 전망이다. 주류제조업체 보해양조의 경우, 나주 혁신산단을 터전으로 바이오에탄올 에너지 사업에 새롭게 진출할 뜻도 내놓았다.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공동 투자설명회를 연 지 불과 사흘 만에 10개 기업을 유치한 것이다. 앞서 입주 1호 기업이 된 보성파워텍까지 합치면 11개사가 벌써 입주의사를 밝혔다. 에너지 밸리 조성의 산실이 될 에너지 밸리 센터 건립도 착착 진행중이다. 한전은 자회사(한전KPS·한전KDN)와 전남도, 기초전력연구원 등과 건립 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이전기업 R&D지원 및 창업보육 등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맡는다. 지역 산학연 R&D 강화를 담당할 기초전력연구원 분원도 같은 날 개원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전남을 국가 신성장 동력기지로**=다른 기업과의 산업 융합을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에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앞날이 밝다. 지난 25일엔 KT와 '빛가람 에너지 ICT 융합센터'를 공동 설립키로 했다. 이 시설에서는 앞으로 진보형 원격 검침(AMI)과 스마트홈, 전기차 충전·카쉐어링, 연구개발 및 벤처육성 등을 두 기업이 협력하게 된다. '전력+ICT'로 빛가람 도시를 스마트에너지 분야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것인데, 지난해 12월 두 기업이 상호협력을 체결한 뒤 빠른 후속조치로 이어졌다.

지역 산학연과의 연계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3월11일 전남발전연구원과 미래 전력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같은 달 26일엔 광주테크노파크의 해외비지니스센터(37개국 44개 센터)를 이용, 전력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를 발굴 및 수출 지원도 약속했다.

◇**광주시·전남도 투자지원에 더 노력을**=에너지 밸리의 기업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강력한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전의 협력사들은 네트워크 강화나 산업 집적화 효과 등을 고려해 나주 이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지원규모에는 고개를 젓고 있다. 수도권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나주까지 이전해 공장을 증설하거나 투자를 지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전 결심이 가능할 수준의 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에너지 밸리 조성'은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인데, 한전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라며 "상생 분위기가 무르익는 이때 지역민의 성원과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빛가람에너지밸리 구현도

※ 전력과 ICT의 융합으로 에너지 신사업을 창조하는 전력 IT클러스터

■ **조환익 한전 사장의 목표**

"대한민국 선도하는 혁신도시로 도약
산·학·연 年100억씩 연구개발비 지원"

한전이 밝힌 비전은 '스마트 에너지 크리에이터, 켑코'(Smart Energy Creator, KEPCO)다. 여기엔 나주에서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갈 혁신적인 '가치창조자'이자, 글로벌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한전의 이 비전을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빛가람 에너지밸리'(Energy Valley)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다. 100여년의 서울 생활을 접고, 나주에 안착한 만큼 새로운 곳에서 최고의 공기업답게 가장 큰 가치를 향해 뛰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우선 함께 이전한 한전KPS, 한전KDN 등 그룹사와 2020년까지 기술 선도 에너지 기업 500개를 유치하고, 창업 유도를 통해 에너지 밸리 특화형 강소 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 산·학·연에 매년 100억원씩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도 에너지 밸리 조성의 큰 줄기다.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한전은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흑자 경영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투자 여력도 커졌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해 1조39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며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등 신성장 동력 발굴과 해외 사업 개척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